

# 필름로스 줄인 미미리사이클장치

## 강제압착 절단방식 수지 물성 해결

농·공업용 필름성형기, 쇼핑백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성형기, 다층 캐스팅필름 성형기, 라미네이팅기, 에어캡시트 성형기, 건축자재용 PP-C, PVC파이프 성형기, PS발포성형기 등 각종 압출성형기를 생산하고 있는 삼광기계(대표 최완중)가 미미리사이클장치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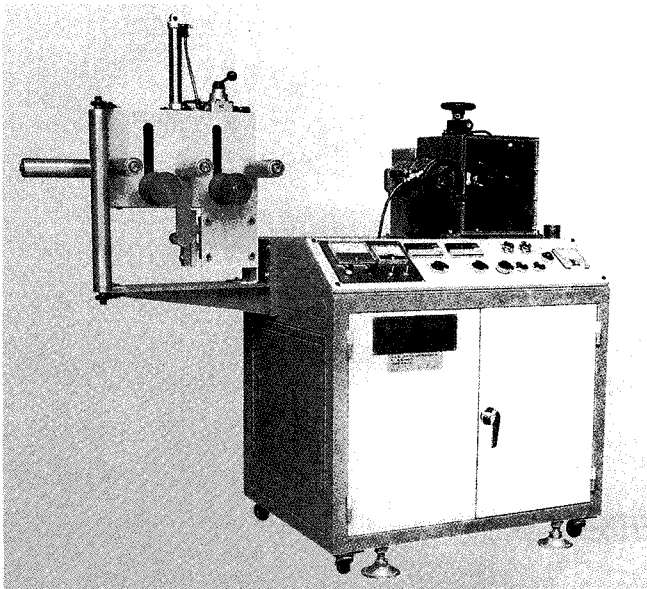
이 기계는 IMF시대에 필름 생산업체들의 생

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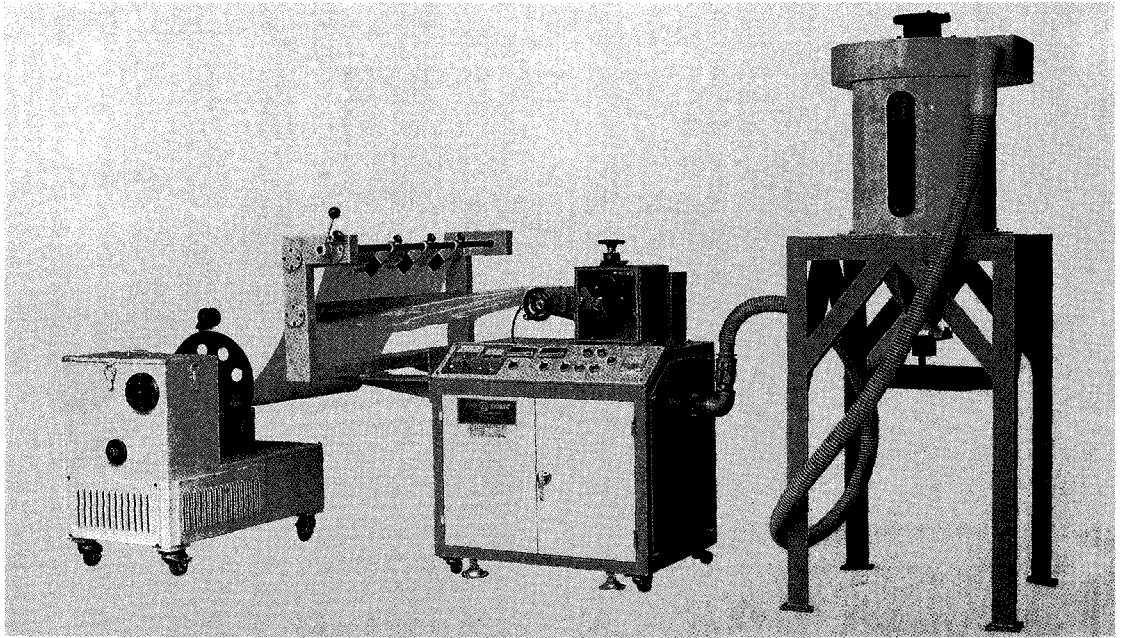
“원가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는 최완중 사장은 “필름 생산업계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압출성형기를 동시에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으나 삼광의 개발로 국내 필름생산업체들의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미리사이클장치는 여러 차례 정밀한 시험을 거쳐 완성한 것으로 이미 모 업체에서 사용결과에 만족한다는 평을 받아 실용신안 신청과 함께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 보완작업에 나섰다.

현재 공업용필름 압출성형기 1대 생산량을 3,000kg으로 계산할 때 필름로스로 버려지는 양은 하루 생산량의 약 5%인 150kg에 달해 금액으로는 한달에 약 500만원, 1년이면 6천여만원 정도가 버려지는 것이다. 이런 로스를 줄일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원가절감 효과를 갖게 된다.



▲ 삼광기계가 개발한 미미리사이클장치



▲ 미미리사이클 장치 특허 30031

최 사장은 “미미리사이클장치 설치 후 필름로스를 현격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3개월이면 기계가격 이상의 이익이 생깁니다”라며 “나아가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원가절감에 한 몫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미리사이클 장치는 신재 펠릿 원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호퍼통에 공급되어 스크류에 의해 압출성형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전혀 없으며 로스를 와인더에서 감고 빼는 번거로움을 제거해 가동률을 높였다.

또한 이 장치에 로스필름을 걸어 놓으면 필름 생산속도와 자동으로 속도가 맞춰지면서 팁이 생산되기 때문에 필름두께 조절시 별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없으며 처지거나 땡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작은 크기로 어느 장소에나 설치가 가능한 이 기계는 이미 불량난 원단도 별도의 팁으로 만들

어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팁을 만들 때 가열하지 않고 강제압착식 절단방식을 채택해 가열할 때 발생하는 수지의 물성문제를 해결해 신재와 같은 물성을 갖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삼광기계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과 수출상담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보다는 이제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수출은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기술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고 경쟁력도 높여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라며 최 사장은 수출에 대한 지론을 강조했다. ☐